

무더위로 잠시 멈췄던 강진 불금불파가 풍성한 이벤트와 함께 재개장 준비를 마쳤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6일 재개장 되는 불금불파를 위해 6일과 7일 방문 감사 이벤트를 개최한다.

행사장에서 사용한 3만원 이상 영수증을 지참 시 행사장 내에서 쓸 수 있는 불고기 1만원권 쿠폰, 냄비받침 경품을 제공한다.

5만원 이상 영수증 지참 시 3만원 이상 경품 혜택과 보온·보냉백을 추가로 제공하며, 10만원 이상 영수증 지참 시 불고기 2만원권 쿠폰, 텀블러를 제공한다. 또 어린이에게는 LED 풍선을 증정한다. 그야말로 방문객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3일과 14일은 고향 방문 가족 사진 촬영 무료 이벤트를 개최한다. 고향을 방문한 가족이 부모님을 모시고 불금불파 행사장을 방문하면 단체 사진을 찍고 즉석에서 2장을 무료로 인쇄해 잊지 못할 병영의 추억을 선사한다.

13일부터 경품추첨권을 제공하며, 9월에 응모한 추첨권은 28일, 10월에 응모한 추첨권은 28일에 각각 추첨해 사



흥행불패 '강진 불금불파' 다시 문연다

은품을 증정하고, 매주 지역농산물,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공연 중간마다 진행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한

오늘 재개장...추석 앞두고 각종 이벤트·체험 '쏟아'

포토존 리뉴얼·고구마 캐기 체험 등 가을 감성 더해

번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다시 불금불파를 찾을 수 있도록 좋은 기분을 만들어갈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로컬브랜드 공모사업과 연계해

/강진=정영록 기자

영암군, 신품종 청무화과 '짐니카' 재배 박차

기존 품종비 추위·벌레 피해 강해

영암군이 이전 품종의 단점을 보완한 청무화과 '짐니카' 재배에 나섰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우승희 영암군수가 삼호읍 삼포리 한 무화과 농가를 방문, 청무화과 신품종인 짐니카의 연구 재배 현황을 살폈다.

방문한 농가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의 무화과 연구사업 실증 현장으로, 지난해부터 짐니카를 보급받아 재배하고 있다.

짐니카는 영암 무화과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흥무화과 '승정도후인' 품종에 비해 추위에 강하고, 총채벌레 피해도 덜하다. 또 유통과정에서 쉽게 물러지 않아 기존 품종의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번 점검에서 수확 초기 짐니카의 평균 무게는 78g, 최대 무게는 100g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청무화과 '바나네'보다 평균 10g 높고, 흥무화과의 평균인 87g에도 손색 없는 무게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방문 농가 등 실증 현장에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성 높은 고품질의 청무화과 재배법을 강화하고, 유통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후속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우승희 군수는 "소비자에게는 더 맛있고, 농가에게는 더 높은 소득을 주는 무화과 개발을 끊임없이 지속하겠다"며 "특히 사계절 맛볼 수 있는 '절없는

무화과' 재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2018년 해외 도입 무화과 30여종의 품종조사에서 시작해 우량 청무화과 품종 선발 및 지역 적응성 시험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농가에 청무화과 신품종 짐니카를 보급해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영암=나동호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가 최근 삼호읍 삼포리 무화과 농가를 방문해 청무화과의 신품종인 짐니카 재배 현황을 살폈다. <영암군 제공>

무안군,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진행

무안전통시장과 업무협약...어린이 장보기 등 추진

무안군은 5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일 무안전통시장 활성화 업무협약, 꼬마 요리사 샌드위치 만들기, 어린이 장보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서는 무안전통시장과 관내 사회단체(무안읍이장협의회, 무안

읍 주민자치위원회, 무안읍 여성회, 무안읍 소방대, 푸른무안(기무안지부) 간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활력을 찾기 위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협약식 후에는 관내 어린이집 원아 100여명이 참석한 '꼬마 요리사 샌드위치 만들기'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해 전통시장만의 재미

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산 무안군수는 "쌀 소비가 줄어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쌀 소비 당부와 쌀을 이용한 김밥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해향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특히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행사는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이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군이 지난 4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나주시, 한가위 전통시장 '환급 이벤트'

11-15일 관내 6개 전통시장서 최대 5만원 상품권 지급

나주시가 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페이백'(Payback·보상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소비 금액의 10%를 나주시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환급 이벤트는 6개 전통시장의 장날에 맞춰 진행된다. 11일 남평·공산 오일장을 시작으로

▲12일 세지 오일장 ▲13일 다시 오일장 ▲14일 목사고을시장 ▲15일 영산포 품물시장 순이다.

상품권 환급은 구매 후 반드시 '2시간 이내' 전통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로 방문해야 한다.

신분증과 구매 당일 발급한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5만원(5만원 이상 구매 고객)이다. 재발행하거나 간이로 작성한 영수증은 환급할 수 없다.

특히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나주사랑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배가된다.

카드 충전 금액의 10% 선 할인 혜택과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5%캐시백 이벤트에 이번 전통시장 10% 페이백 혜택을 더하면 총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품질 좋은 명절 음식, 훈훈한 인심에 나주시사랑상품권 환급 이벤트까지 이번 추석명절 나주의 전통시장에서 알찬 소비 혜택을 누리보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역화폐 소비 이벤트를 통해 고물가, 고금리 등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김대식 목포시 수도과장, 맑은 물 공급 기여 공로상

물중합기술연찬회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표창

목포시는 "최근 김대식(사진) 수도과장이 2024년 물중합기술연찬회에서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물중합기술연찬회는 국회환경포럼, 워터저널, 강원특별자치도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가운데 물관리 기관 표창, 우수공무원 시상, 정책 특강, 물관리 우수 지자체 사례 발표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연찬회에서 전남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목포시가 물 관리 공로 상을 수상했다.

목포시는 전남 최초로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보급률 100% 달성, 체계화된 누수방지 업무를 통한 상수도 유수율 향상(89.79%) 등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목포시는 상수도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에서 상위등급인 '나'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노후 상수관망 교체 등 혁신기술 도입으로 행안부 주관 '2023년 상수도분야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기관'에 선정,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대식 수도과장은 "상·하수도 주요 사업의 지속적 투자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청정마켓, 추석 맞이 '수산물 통 큰 할인' 진행

완도군은 5일 "오는 12일까지 완도청정마켓에서 '추석 맞이 수산물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에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활 전복,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등을 각각 20% 할인 판매한다.

기획전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완도산 수산물을 할인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 자리가 풍성한 추석을 보내 수 있도록 하고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사)한국전북유협회와 (사)남도전북연합회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기본 20%에 추가 20%를 적용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전복을 판매 중이다.

주문은 '제철장터(직영물, 육선)'와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어플)'을 통해 가능하다.

전복 가격은 1kg 기준 8-9미는 2만5천200원, 9-11미는 2만2천200원, 13-14미는 2만800원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 할인전을 통해 추석명절에 맛과 품질이 좋은 완도산 수산물을 가족들과 함께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해남군 북일면 갈두동원(심은정) 농가가 추석 앞두고 해남 배 출하를 시작하며 우수한 품질을 소개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보약 따로 없네"...해남 가을배 수확 한창

풍부한 일조량·일교차로 '과실 단단·육즙 풍부'

해남군은 5일 "추석을 앞두고 두륜산 맑은 물과 바람이 키운 해남 배 출하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특히 배는 빼놓을 수 없는 명절 과일로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우리나라의 대표 과일이다.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능이 탁월해 환절기 보약이 따로 없는 영양만점 과수다.

해남 배는 해남에서도 연평균 기온이 1-2도가량 따뜻한 북일면에서 재배되고 있다. 두륜산 인근의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풍부한 일조량을 가지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서 재배돼 과실이 단단하면서도 과즙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해남 배는 직거래시 7.5kg 한상자에 4만5천000원에서 5만5천000원(택배비 포함)에 판매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연초부터 시작된 과일 가격의 폭등으로 올 추석 차례상 물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데 제수용품으로 쓰일 햇과일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해남=백필용 기자